

지역 소식통

익산농업인대 상반기 워크숍

미래 익산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선도할 창의적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10기 익산농업인대학의 상반기 워크숍이 3월 27, 28일(2일간) 고창군 웰파크시티에서 교육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도 익산농업인대학 운영을 1개월간 진행해 온 시점에서 학과별 교육 중간성과를 검토 분석하고 교육생 간 정보교환으로 농업인대학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배리팜영농조합을 방문해 농식품 6차산업의 운영사례 강의를 듣고 배리를 활용한 체험과 농가맛집을 체험하며 현장감 있는 사례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제 2차 익산시 농업인인 되자'를 주제로 교양강좌와 팀워크 강화 훈련, 단체 화합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올해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안내와 함께 2017년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맞아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1~2.2%를 과세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산시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3천5백여개 업체와 40여 개의 세무 및 회계사에 배부하여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농기센터 과수병해충 방제 교육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27일 오후 농업인교육관에서 과수 농가 340여명을 대상으로 과수 병해충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이번 방제 교육은 최근 3년 간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된 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산켜벌레 등과 같은 외래 병해충의 예방 방법과 해충별 방제 적기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과와 배나무에서 발생하는 세균에 의한 화상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기에 적용 약제 처리를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희망동행 후원결연사업

배려·나눔 행복공동체 실현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후원은 동 주민센터 문의

익산시에서는 개인 가정, 지역업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소액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희망동행 후원결연사업을 펼침으로 배려와 나눔으로 마을의 벽을 허무는 행복공동체를 실현해 가고 있다.

익산시 희망동행 후원 사업은 지난 2016년 10월 읍면동·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전북 공동 모금회와 손을 잡고 지역에서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희망찬사람을 발굴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 주도형 기부 나눔사업이다.

『희망동행(希望同行)』은 익산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식명칭으로 "지역의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주고 더불어 행복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희망동행 후원결연사업은 2016. 10월

모현동 착한가게 1호점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521명의 기부자들이 참여하여 8,156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이렇게 모아진 후원금은 전북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다.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는 "복지업무 하다보면 실제로 생활은 어려우나 법적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급하게 지원이 필요한데 시간과 절차가 오래 걸려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다. 희망동행 결연사업은 이런 분들을 신속하게 돕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의미있는 나눔사업이다"고 말했다.

희망동행 후원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소시민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이이를 키우는 엄마부터 잘 결혼한 신혼부부, 소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 등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들이 모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유정숙 복지청소년과장은 "더불어 행복한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이웃애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과 동행하는 희망찬사가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희망동행 후원결연사업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행복한 마을을 꿈꾸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착한가게는 월3만원, 착한가정은 월2만원, 1인1계좌 3천원 이상 기부할 수 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 시트 봉제 교육 실시

1기 교육생 4월 11일까지 선착순 15명 모집

ECO융합섬유연구원(김인관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구인난 해소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시트 봉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인력양성사업을 통하여 기업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봉제 교육생 20명 중 17명이 수료하였다.

그 중 15명이 자동차 시트봉제 기업인 (주)용산으로 취업하여 취업률 88%의 성과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톡톡히 이뤄냈다.

연구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동차 시트봉제 1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대상은 자동차 시트봉제에 관심있는 도내 미취업자로 오는 4

월 11일(화)까지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기업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기술 및 현장인력을 양성하여 신규채용 기회를 늘리고 인력양성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시트봉제 1기 교육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CO융합섬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ex.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1기 교육생 모집

27일부터 신청·접수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다음달 8일부터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여복)과 함께하는 '어린이행복 부모학교'의 첫 번째 교육을 시작한다. 시는 기존의 일회성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참여와 효과가 미비했던 부모 교육을 '어린이 행복 부모학교'로 통합함으로써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행복 부모학교'는 매월 1회 주말 8시간 동안 상설화원 감정코칭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상시적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질적인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행복 부모학교'가 그 첫 번째로 1기의 교육은 군산시 여성교육장에서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의 저자이자 아시아 유일의 가트맨식 감정코칭 공인치료사인 최성에 교수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신청 부부 50쌍(한부모가족 신청 가능)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과 9일 이틀간 총 8시간에 걸쳐 자녀 양육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27일부터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에 방문하거나 또는 이메일(kanghseok@korea.kr)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 참여 가족에 대해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특강 및 숲체험 교실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행복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서해 수호 안보사진전 개최

오늘까지 전북제일고서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3월 24일 제 2회 '서해 수호의 날'을 계기로 북방한계선(NLL)에서 일어난 북한 도발 사건들의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 수호 안보사진전을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전북제일고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의 희생자인 故문광욱 일병의 모교인 전북제일고에서 서해 수호 관련 10여점의 사진을 전시함으로

서, 모교 학생들에게 북한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서해 수호를 위해 희생한 모교 출신의 문광욱 호국영웅을 존경하고 영원의 기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예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곳곳 봄꽃 식재 새봄맞이 환경정비

새 봄을 맞아 익산시 곳곳에서 봄꽃 식재와 환경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왕궁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류형규)는 3월 27일 오전 신령로터리 주변 내 봄꽃을 식재하고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새봄을 맞아 익산의 관문인 왕궁면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해 마련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들은 각자 가정에서 호미와 삽을 가져와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신령로터리에 팬지 등 다양한 초화류 1,500본을 식재했다.

같은 날 황등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부녀회 회원 및 직원 등 100여명은 면사무소 주변 공터에 팬지, 일일초, 수선화 등 화려한 봄꽃 5종 1,000본을 식재했다. 이어 황등면 시가지지를 따라 쓰레기 줄기, 불법광고물 및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했다.

황등면 동원리 하동 마을회는 마을 꽃길 조성을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미리 정비해둔 마을 진입로 1km 구간의 자갈에 다양한 봄꽃 1,500본을 식재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액 납부 독려 추진

군산시는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도래자 및 체납자 2백명을 대상으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읍·면 직원과 공조체제를 유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산상환과 가족 소득 등 납부능력과 의지를 파악하고 체납처분 등 납부절

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시 복지지원과 김주홍 과장은 "8개월마다 부과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매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며 "소액이라도 분할 상환을 통해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featuring a child painting and text: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Logos for DreamHub GUNSAN and GUNSAN CITY are visible.